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학생 사회불안의 차이

신혜린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차이에 따라서 사회불안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회불안은 그 하위 유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발표불안으로 구분되었으며, 성인 애착유형은 네 가지 유형(안정 애착형, 거부 애착형, 의존 애착형, 두려움 애착형)으로 구분된다. 성인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원 다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애착유형에 따라 사회불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있어서는 안정형이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고, 수행불안과 발표불안에 있어서는 안정형이 의존형, 두려움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발표불안에 있어서만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은 사회불안 전반에 대해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이진 않았다.

주요어 : 성인애착유형, 성차,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 불안, 발표 불안

† 교신저자: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6)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안을 느끼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때론 약간의 긴장은 사회적 상황에서 긍정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돋기까지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사회적 과제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해서 친구관계, 이성관계, 직장 생활 등에서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하게 된다(Davidson, Huges, Gerge, & Blazer, 1994; Schneier, Heckelman, Garfinkel, & Campeas, 1994). 이렇게 상호교류나 사회적 수행을 포함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을 사회공포 혹은 사회불안이라고 한다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사회불안은 한 개인의 학업 수행이나 직업기능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며(Davidson et al., 1994) 사회불안으로 인해 사회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상실되어 개인적 성공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집단 간 커뮤니케이션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집단들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사회적 손실까지 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회불안은 일반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로서(Schneier, Jo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성인의 15-20%가 사회불안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보고되었다(Pilkonis, Feldman, Himmelhoch, & Cornes, 1980). 특히, 대학생의 경우 19-22%의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사회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된다 (Beidel, Turner, Stanley, & Dancu, 1989; Strahan, 2003). 대학생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는 일, 사람들 앞에서 글을 쓰거나 발표하기, 집단 토론, 데이트 등 발달 과정 상 많은 사회적 수행의 도전들에 마주치게 되는데, 이 때 사회적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은 이러한 도전을 힘들게 느낄 수 있다(Shepherd, 2006). 그런

데 대학과정은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도기적 단계로 이 시기의 발달과제의 성공여부는 성인기의 적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적응을 돋기 위해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어떤 요인들이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4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ition: 이하 DSM-IV)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사회적 상황 범위'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는 일반화된 유형(generalized subtype)과 사회불안 상황이 특정 상황에서만 한정되어 있는 특정 유형(specific subtype)으로 구분하고 있다(APA, 199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92). 그러나 현재 DSM-IV 진단 체계가 사회불안의 원인이나 증상, 치료 등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Turner, Beidel, & Townsley, 1992). 왜냐하면 그 정의가 모호하고 사회불안의 분명한 속성을 증명해 보이는 경험적 연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Heimberg et al., 1999).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사회적 상황 성격'에 따라 양방향적이고 유관적인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겪는 상호작용불안(interaction anxiety)과 일방향적이고 비유관적인 대인관계에서 불안을 겪는 수행불안(performance anxiety)으로 구분되기도 한다(Leary & Kowalsky, 1995a, 1995b). 이러한 사회적 상황 성격에 따른 구분은 사회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을 분류, 평가, 치료하는데 유용하여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황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의견과 같은 맥락(Cheek & Stahl, 1986)을 둔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essler, Stein 및 Berglund(1998)는 인구학적 조사(epidemiological study)를 통해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발표불안’은 내용상 수행불안에 속하지만 사회불안의 3분의 1정도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사회불안의 독자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Perugi 등(2001)도 기존의 발표불안이 다른 수행상황과 구별되는 차원이며 대인관계 불안과도 구별되는 차원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Stein, Torgrud 및 Walker(2000)도 발표불안만 갖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과 뚜렷이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현재 사회불안의 하위유형에 대한 구분이 다양하며 이를 구분하는 데 혼란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구분함에 있어 사회적 상황 성격에 따라 사회불안을 구분한 Leary와 Kowalsky의 주장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자 하며, 보완적으로 발표불안을 사회불안의 독자적인 하위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Kessler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을 채택하고자 한다.

한편 애착이론(Bowlby, 1980)은 사회불안을 포함하여 인간의 정신작용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애착이론은 양육자와 아동이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하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Bowlby, 1969), 어머니와 분리될 때나 낮선 사람과 만날 때, 신체적 고통을 경험할 때 등 정서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애착체계가 활성화된다. Bowlby(1980)와 Bretherton

(1985, 1987)등은 양육자와의 사이에서 형성된 타인의 반응에 대한 기대와 경험 양상이 일생에 걸쳐 자신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초기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이후 타인에 대한 상호작용 방식의 잠재적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대인관계 시 안정감을 주어 자신감을 갖고 타인과 관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Sroufe, 1996).

Bowlby(1973)는 이러한 애착유형이 성인기의 인지나 행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일생에 걸쳐 안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애착유형은 초기 애착유형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중요한 관계들을 통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다(Kobak, 1994; Lewis, 1994). 즉, 한 가지 애착유형에 의해 개인을 특징지울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성인애착의 안정성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문들도 제시되고 있는 등(Zhang & Labouvie-vief, 2004) 성인애착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애착 유형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인애착에 대한 지속적인 여러 연구들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패턴이 하나의 특성으로 통합되어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성인애착의 중요성을 꾀력하고 있다(Lopez & Gormel, 2002; Park, Crocker, & Mickelson, 2004; Perrine, 1999). 그리하여 Bartholomew(1990)는 성인애착연구에서 영아기의 애착패턴 그 자체보다 현재 개인의 내적 작동모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내적작동모델이란 애착대상과의 분리에 대한 위협 시 유발되는 애착 대상에 대

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겨난 행동들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기초로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련의 심리 내적인 표상모델을 말한다. 내적 모델을 통해 양육자가 민감하고 보호적인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관심 받고 보호받을 만큼 가치 있고 유능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대와 신념이 형성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내적 작동모델은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이해와 예언을 하게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형성하게 한다(Collins & Read, 1990). Bartholomew(1990)는 Bowlby(1969)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성인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을 자기모델에 대한 긍정성과 타인모델에 대한 긍정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 의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안정형 애착 유형(자기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타인모델에 대해서도 긍정적임), 거부형 애착 유형(자기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되 타인모델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의존형 애착 유형(자기모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되 타인 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임), 두려움 애착 유형(자기 모델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타인 모델에 대해서도 부정적임)으로 구분된다. 연구들에 의하면 안정 애착 유형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모델을 갖고 있으므로 자아 탄력성이 높고, 불안감이나 적개심이 낮으며, 대인관계가 좋다고(Kobok & Sceery, 1988) 보고된다. 한편 불안정 애착 유형들(두려움, 거부형, 의존형 애착 유형)은 자기모델 혹은 타인모델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기 가치감(self-worth)이 낮고, 부정적 자기 개념을 갖게 되거나 타인모델이 부정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및 지지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게 된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Bartholomew와 Horowitz의 성인

의 내적 작동모델에 초점 맞춘 애착 4유형을 지지하는 연구들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의 3유형과 4유형의 모델을 비교한 국내 연구(장희숙, 1997)와 알콜중독자 부모의 성인 자녀를 대상으로 Hazan과 Shaver(1987)의 3유형 척도와 Bartholomew의 4유형 척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비교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 결과 성인애착 3유형보다 성인애착 4유형이 애착유형을 좀 더 민감하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애착이론의 성인애착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사회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다른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제를 밝히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Vertue, 2003). 왜냐하면 첫째, 기존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의 관점은 인지적 스키마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Beck, Emery, & Greenberg, 1985), 그러한 스키마와 신념을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에 대해 명백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반해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 모델은 지금 까지 연구되어온 사회불안과 관련된 많은 인지적 특성(Leary & Kowalski, 1995)과 발달진화론적인 관점, 자동적 행동 경향성, 감정 요소 까지 통합하고 있다(Vertue, 2003). 둘째, 기존의 사회불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기와 관련된 현상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Leary, 2001a) 애착 이론의 내적작동모델은 자기상과 더불어 타인상을 함께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Bowlby(1973)에 의하면, 불안은 유아가 양육자에게 접근하는 데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원하며 이것이 불안정 애착의 근원적인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assidy와 Berling(1994)은 불안정 애착유형(양가적 불안애

착)이 이후에 불안장애와 연관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애착과 불안의 관련성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12세의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아동이 안정적 애착 유형의 아동 보다 불안 증상이 높다는 연구(Muris, Bayer, & Meesters, 2000), 박사 과정생들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연관이 높다는 연구(Arnold, 2001), 12개월의 불안정 애착인 유아가 안정 애착 유아보다 11세에 학교에 대한 공포를 더 많이 느낀다는 연구(Bar-Haim, Dan, Eshel, & Sagi-Schwartz, 2007) 등이 있다. 이렇게 불안과 애착과의 관계성 연구들에 근거하여 성인애착유형과 사회불안의 관련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인 애착유형의 특성과 사회불안의 요소를 살펴볼 때 그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Leary(2001b)는 자기제시이론에서 사회불안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타인에게 특정한 인상을 주고 싶은 욕구가 있으나 이 욕구가 실패할 것을 예상하며 이러한 예상은 관계에 대해 평가 절하하게 되어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애착이론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부정적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 경우 타인이 자신을 수용하는데 대해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이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질 만한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있게 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즉, 애착유형은 사회불안의 핵심적인 특징인 타인의 거절에 대한 예상과 민감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artholomew & Horowitz, 1991; Bowlby, 1973; Griffin, & Bartholomew, 1994; Hazan & Shaver, 1987, 1994). 예를 들면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사람들이 안정적 애착유형의 사람들보다 관계에서 위협적인 과제들(예: 상

대자가 성적 호감도를 평가하게 되는 데이트 상황 등)에 대해 훨씬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Simpson, Ickes, & Grich, 1999). 또한 불안정 애착일수록 사회적 회피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Eng, Heimberg, & Hart, 2001).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용하여 사회불안의 주요 특징인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Brennan & Shaver, 1995)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불안정 애착은 발표불안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자기표현력과도 부적상관을 보인다(박은경,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그리고 미국 국립 공존질환 조사(National Comorbidity Survey: 이하 NCS)의 인구학적 조사결과 사회적 불안과 성인애착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었다 (Michelson, Kessler, & Shaver, 1997).

그러나 이렇게 애착유형과 사회불안의 관계성을 암시하는 연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애착이론과 사회불안의 관계성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Eng et al., 2001), 대학생의 전반적인 사회불안과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과의 연관성을 다룬 경험적 연구가 없었다. 그 이유는 애착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임에 비해 일반적인 사회불안은 친밀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고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그동안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애착의 내적 작동 모델과의 관계 연구 자체가 많지 않은 실정이었다 (Vertue,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사회불안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자 한다.

한편 최근 들어와 불안 장애에 있어서 성별 차이에 관심을 두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Bekker, 1996; Castle, Deale, & Marks, 199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Misra와 McKean(2000)은 학업 스트레스, 시간관리, 불안 등에서 성적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관리 행동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효과적으로 대처 하지만 정서적인 면인 학업스트레스나 불안은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특정 공포증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Fredrikson, Annas, Fischer, & Wik, 1996). 불안 자체에 대한 인지적 신체적 걱정의 경향성 또한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Hewitt & Norton, 1993). 이러한 불안 장애의 성별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Turk & Heimberg, 1998). 그러나 사회 별달 과정 중 사회적 성역할 기대로 인하여 남녀의 사회 불안 태도(수줍음)에 대해 다른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Bruch & Cheek, 1995)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발병학 연구에 의하면 사회 공포증의 경우 사회공포의 생애 발병률이 남성은 2.0% 인데 반해 여성은 3.1%로 보고되었다 (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그리고 미국인 8,000명을 대상으로 한 NCS에 의하면 사회공포증의 경우 남성이 11.1%인 데 반해 여성은 15.5%로 발병률이 높았다 (Kessler et al., 1994). 또한 Truk와 Heimberg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남녀의 사회불안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Dickstein (2000)은 사회불안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탐색하는 것은 성별에 따라 병 원인을 밝히고 더 나은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각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 애착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의 결과들이 있다는 연구들과 (Pietromonaco & Carnelley, 1994; Simpson, 1990) 애착유형과 성별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결과들 (Brennan, Shaver, & Tobey, 1991; Hazan & Shaver, 1987; Levy & Davis, 1988)이 불일치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사회불안의 상호작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그동안 애착이론과 사회불안의 관계성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았으며 (Eng et al., 2001), 몇몇 사회불안과 애착과의 관계 연구들은 사회불안의 한 유형인 사회적 상호작용에만 한정된 대인불안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신노라, 안창일, 2004; 임지은, 2003). 따라서 전반적인 사회불안과 애착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사회불안 유형 구분의 근거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 세 유형으로 사회불안을 세분화하여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를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애착유형의 빈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Feeney, Noller, & Hanrahan, 1994; 장휘숙, 1997)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별 분포는 연구마다 다른 연구 결과를 보이는데 성별에 따라 애착유형이 주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 (Brennan et al., 1991; Bartholomew, 1991)에 근거하여 성인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의 세 하위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성인 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과

애착유형이라는 개인차를 고려하여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치료하는 데 그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인애착유형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후,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회불안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별에 따라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불안에 대한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25분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3.0에 의해 분석되었다. 우선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검증을 위해 카이스퀘어 검증(Chi-Square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의해 사회불안의 세 가지 유형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이원 다변량분석(Two way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MAN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인은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이고 종속변인은 사회불안의 세 유형(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소재한 4년제 남녀공학 Y 대학교와 S여자대학교의 재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 중 관계유형 질문지 (Relationship Style Questionnaire: 이하 RSQ) 문항에 의해 애착유형이 일치하는 225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남학생이 81 명(36.0%), 여학생이 144명(64.0%)이었다. 연구 참가자들 전체 연령범위는 19~30세였으나, 97.3%의 학생들이 19~26세에 해당하고, 전체 연령평균은 22.17세($SD=2.06$)로서 연령이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남학생의 연령범위는 19~29 세, 연령평균은 22.13세($SD=2.36$)였으며, 여학생의 연령범위는 19~30세, 연령평균 22.29 ($SD=1.89$)이었다. 본 검사는 자기 보고식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소요 시간은 약

측정도구

성인애착유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애착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척도,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척도-관계 질문지(RQ; Relationship Questionnaire), Collis와 Read(1990)의 성인애착질문지(AAS; Adult Attachment Scale)를 참고하여 1994년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제작한 30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된 RSQ를 사용하였다. RSQ는 안정형, 의존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애착 유형 중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그 애착 유형과 더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도구개발 당시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3이었다.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안정형 .60, 의존형 .45, 거부형 .63, 두려움형 .77이었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으로 대인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Mattick과 Clarke(1998)가 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척도(Social Interactive Anxiety Scale: 이하 SIAS)를 사용하였다. SIAS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0)의 연구에서 변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였고, 본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91이었다.

수행불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 혹은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수행불안에 대한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attick과 Clarke (1998)가 개발한 사회 공포증 척도(Social Phobia Scale: 이하 SPS)를 사용하였다. SPS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식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도 김향숙(2000)이 변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도 .92로 나타났다.

발표불안 측정도구

발표불안 척도(Speech Anxiety Scale: 이하 SAS)는 Paul(1966)이 개발한 발표자로서의 자신감에

대한 자가 보고(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PRCS)를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1999)이 우리나라 말로 번안한 것으로서 발표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발표상황에서 보이는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불안 반응들에 관해 묻는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식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 문항의 반은 역채점은 하도록 되어있다. 조용래 등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였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94였다.

결과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

우선, 애착유형별로 각 평균 점수가 산출되는데 이 때 가장 높은 점수의 유형을 그 애착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유형 미분류로 포함된다. 미분류를 제외하자 전체 인원수가 225명이 되었다. 그 중 안정형 애착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의존형, 두려움, 거부형 순으로 나타났다.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카이제곱을 실시한 결과,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3, N=225)=5.24, p>.05$. 성인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검증이 표 1에 제시되었다.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의 세 유형에서의 차이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의 세

표 1.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성별 차이검증

()는 %

	성별	성인애착유형				계	df	χ^2	p
		안정형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성별	남자	37(45.7)	5(6.2)	30(37.0)	9(11.1)	81(36.0)			
	여자	62(43.1)	12(8.3)	39(27.1)	31(21.5)	144(64.0)	3	5.24	.16
	계	99(44.0)	17(7.6)	69(30.7)	40(17.8)	225(100)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네 수준의 성인애착유형과 두 수준의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한 이원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량-공변량 행렬의 동분산 검증결과, 영가설이 수용되어 동분산성 가정이 만족되었다, Box's M = 50.72, $p > .05$. 즉, 종속변인의 관측 공분산 행렬(covariance matrices)이 동일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하였는데 우선,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다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 검증한 결과 유의도 .001수준에서 의미가 있었다, Wilks' $\lambda = .81$, $F_{3,217} = 5.29$, $\eta^2 = .07$, $p < .001$. 그리고 성별에 따라 다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유의도 .05수준

에서 의미가 있었다, Wilks' $\lambda = .96$, $F_{1,217} = 2.75$, $\eta^2 = .04$, $p < .05$. 그러나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변량분석의 전체 분석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이 각각 종속변인(사회불안 세 유형)에 대한 결과해석이 의미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성인애착유형과 성별에 있어서 종속변인 각각에 대한 변량분석(ANOVA)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들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F_{3,217} = 13.82$, $\eta^2 = .16$, $p < .001$), 수행불안($F_{3,217} = 4.79$, $\eta^2 = .06$, $p < .01$), 발표불안($F_{3,217} = 6.64$, $\eta^2 = .08$, $p < .001$) 모두에서 집단

표 2.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한 변량분석

	평균(표준편차)				F	η^2	Scheffé 검증
	1.안정형 (n=99)	2.거부형 (n=17)	3.의존형 (n=69)	4.두려움형 (n=40)			
사회적상호작용 불안	-.51(.74)	.38(1.04)	.35(1.07)	.34(.91)	13.82***	.16	1>3,4
수행불안	-.35(.85)	.02(1.26)	.14(.99)	.40(1.02)	4.79**	.06	1>2,3,4
발표불안	-.40(.96)	-.04(.90)	.23(.90)	.52(1.02)	6.64***	.08	1>3,4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모두 표준점수(Z)화 한 후 표기됨

** $p < .01$, *** $p < .001$

표 3.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에 대한 변량분석

	평균 (표준편차)		F	η^2
	남성 (n=81)	여성 (n=144)		
사회적상호작용 불안	.02 (.94)	-.06(1.03)	.55	.00
수행불안	.03(1.05)	-.08(.97)	.60	.00
발표불안	-.24(.91)	.11(1.04)	5.21*	.02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모두 표준점수(Z)화 한 후 표기됨

* $p < .05$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각 성인애착유형의 종속변인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들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수행불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발표불안($F_{1,217}=5.21$, $\eta^2 = .02$, $p<.05$)에서는 성별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즉, 남성보다 여성에게 있어서 발표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별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3에 제시되어있다.

독립변인 성인애착유형은 두 개 이상의 수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의 평균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S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불안 변인에 있어서 안정형 애착유형이 거부형($p<.01$), 의존형($p<.001$), 두려움형($p<.001$)의 모든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불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수행불안 변인에 있어서는 안정형 애착유형이 의존형($p<.05$)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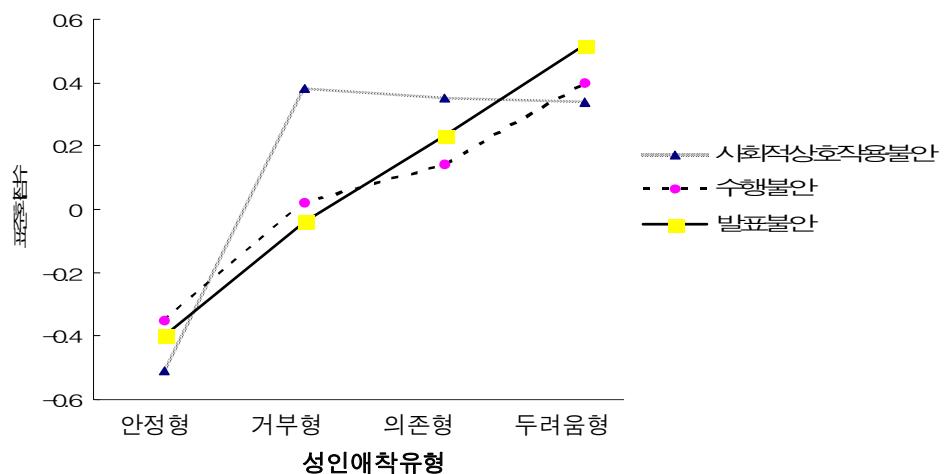


그림 1.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

두려움형($p<.01$) 애착유형보다만 불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발표불안 변인에 있어서도 안정형 애착유형이 의존형 ($p<.001$)과 두려움형($p<.001$) 애착유형보다만 불안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각 애착유형별 종속변인 점수 차이를 쉽게 나타내기 위해 종속변인의 표준화 점수 결과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사회불안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인애착의 내적 작동모델 관점과 성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애착과 성차가 사회불안의 발생 기제와 유지 기제로서 타당한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경험적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의 치료의 근거로서 발생 및 유지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대인관계의 자신감과 학업 및 직업기능을 증진시켜 개인의 심리적 복지향상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인애착유형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수행불안, 발표불안에서 성인애착의 네 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성인 애착유형의 빈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안정형의 비율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존형, 두려움형, 거부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안정형의 빈도가 전체적으로 40~50%로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Batholomew & Horowitz, 1991). 성별에 따

른 애착유형별 분포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의존형 유형의 비율이 특히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성인 애착유형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인애착의 자가보고 척도에서 성차가 없었다는 연구결과(Hazan & Shaver, 1987; Brenman et al., 1991;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와는 일치하나 그 밖의 연구가들의 연구결과(Bartholomew & Horowitz; Brennan et al.; Harrison-Greer, 1991)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애착의 문제는 성별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기제임을 지지하는 결과로 보는 견해이다. 즉,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은 생득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다는 Bowlby(196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azan과 Shaver(1987)가 주장한대로 비록 성별에 따라 안전감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기술들이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성인애착유형은 안전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여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관계가 내적 작동모델을 통해 성인기에도 사회적 작용에서 지속적 작용하고 있다는 이론과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RSQ의 측정개념의 한계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다. RSQ는 유형별 점수의 합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애착 유형으로 결정되는데 두 개 이상의 유형에서 동점의 점수를 얻을 경우 어느 한 유형으로 범주화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점수 양상을 보이는 개인이라도 최고 점수만 같으면 동일한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제한점이 지적된다(이수란, 이동귀,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 애착 유형의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인애착 네 개의 유형에 따라 사회 불안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났다. 즉,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있어서는 안정형이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고, 수행불안과 발표불안에 있어서는 안정형이 의존형, 두려움형보다만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결과에서 사회불안의 하위 유형에 있어서 안정형 애착유형은 불안정 애착유형(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들과 분명히 구분되며, 일관되게 낮은 불안수준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안정적으로 애착형성이 된 개인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음으로써 (Bartholomew, 1991)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타인들 앞에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긍정적 기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 애착 유형이 불안정 애착유형보다 자아 탄력성이 높고, 불안감이나 적개심이 낮고, 대인관계가 좋다는 연구들(Kobok & Sceery, 1988)과 비슷한 맥락의 결과이다. 그리고 사회 불안의 특징에 따라 애착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회불안의 사회적 상황 성격(양방향적이고 유관적인 대인관계 상황 : 일방향적이고 비유관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따라 애착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양방향적이고 유관적인 대인관계 상황의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에 있어서는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이 안정형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고, 일방향적이고 비유관적인 대인관계 상황인 수행불안과 발표불안에서는 의존형, 두려움형만이 안정형보다 높은 수준의 불안을 보였다. 이는 일방향적이고 비유관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의존형과 두려움형의 공통 특징)이 사회불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양방향적이고 유관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표상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표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거부형처럼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인 경우에는 발표나 수행상황에서는 불안을 덜 느끼지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을 높게 느낀다. 이는 거부형이 타인들과 가까워지거나 의존하는 것을 어려워 하며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외현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중요성을 축소화하지만 내적으로는 신체화 증상 및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Mikulincer, Florian, & Tolmacz, 1990; Mikulincer, Florian, & Weller, 1993)들과 일치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불안정 애착유형 중에서도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의 긍정과 부정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Bartholomew 등(1991)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셋째, 다변량 분석결과 성별에 따라 사회불안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불안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Kessler 등(1994)이 NCS와 1992년 유행 병학 역학 면적(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 :ECA) 조사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불안 발병률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불안의 하위 영역별로 변량분석을 한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수행불안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발표불안에서만 남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상황에 따라 남녀의 사회불안을 느끼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Turk & Heimberg, 1998; Wittchen, Stein, & Kessler, 1999)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Turk와 Heimberg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권위자 앞에서 이야기 하거나 청중들 앞

에서 이야기 하는 상황, 회의 시간에 자기주장을 펴는 상황 등 발표불안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전화통화하기, 공적인 자리에서 술 마시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파티에 가기 등의 상황에서는 남녀의 불안 수준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연구결과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수행불안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발표불안에서만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발표불안이 다른 사회불안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사회불안과는 달리 발표불안은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조용래, 원호택, 1997), 미국의 경우 30.2%(Kessler et al., 1998)의 발생률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 이하 학력자들보다 대학생 이상의 학력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Kessler et al., 1998).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수행불안에 비해 발표불안 척도에 대해 본연구의 연구대상인 대학생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불안의 성별차에 대한 연구 중에서 사회적으로 창피한 상황에 대해 환자군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창피하다고 보고한 반면 일반인 군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반응의 차이가 없었는데(Edelmann, 1985), 이는 사회불안에 대한 민감한 집단에서 성별차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특성으로 다른 사회불안에 비해 발표불안을 좀 더 민감하게 느껴, 성별 차가 유의미하게 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발표불안을 더 높게 느끼는 이유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화과정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Bruch와 Cheek(1995)는 사회적으로 여아들이 부끄러워

할 때보다 남아들이 부끄러워할 때 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등 사회 발달 과정동안 남아들의 부끄러움 특성은 남자들의 전통적 성역할과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 부끄러움은 전통적 여성 역할과 일치하여(Bem, 1974), 사람들 앞에서 자기표현을 해야 하는 상황들에 대해 부정적 피드백을 덜 받으면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표상황 등에 직면하게 되면 더 낯설게 느끼고, 더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어 불안을 더 많이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성별과 성인애착유형이 사회불안에 대한 상호작용은 없었는데, 이는 애착유형과 성별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연구들(Pietromonaco, Carnelley, 1994; Simpson, 1990)과는 달리, 성별과 성인애착유형은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서, 애착유형과 성별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기존 연구결과들(Brennan, Shaver, & Tobey, 1991; Hazan & Shaver, 1987; Levy & Davis, 198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인 애착 유형과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의 차이는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해 줄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상담할 때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사회불안을 느끼는 대학생 내담자를 도와줄 때 상담자들은 우선 내담자의 자기에 대한 모델과 타인에 대한 모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애착관계를 통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상을 갖고 있을 때 대학생이 되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할 때뿐만 아니라 타인들 앞에서 하는 발표 및 그 밖의 여러 수행들을 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을 느껴 학습 및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불안을 치료할 때 현재 증상과 관련된 인지, 행동, 감정을 살펴볼 뿐 아니라 내담자의 애착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기에 대한 모델과 타인에 대한 모델의 작용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불안을 느끼는 내담자를 치료할 때 상담자는 특히 내담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내담자의 내적작동모델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통해 재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Brisch, 1999/2003) 상담자 내담자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내적작동모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사회불안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사회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을 치료계획 및 전략에 있어서 개인의 애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변화 목표를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행불안이나 발표불안보다 상호작용 사회불안을 더 많이 호소하는 내담자의 애착유형이 거부형인 경우 자기상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타인의 중요성을 거부한다는 특성을 염두하면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상의 변화를 목표로 잡을 수 있다. 반면 의존형인 경우 부정적 자기 상 변화에 좀 더 초점을 두어야 하며, 두려움형인 경우 부정적인 자기와 부정적인 타인 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여자의 비율이 66.7%로 남자에 비해 높아 성차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크기의 표본을 고르게 모집하지 못하였다. 또한 성인애착유형 중 거부형의 경우 17명으로 거부형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었다. 이에 남녀차이와

애착유형의 사회불안에 대한 영향을 일반화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애착과 성별에 따른 사회불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남자 표본 수를 보충하고, 전반적인 표본의 수를 높인 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또는 각 애착 유형별로 표본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후 회귀 분석을 통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대학생들 중 사회불안 임상 환자군에게까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환자군에서의 애착과 성별의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애착의 하위 유형을 나누는데 사용되는 도구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RSQ는 유형별 점수의 합 중 가장 높은 점수가 애착 유형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유형에서 동점을 얻을 경우 어느 한 유형으로 범주화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점수 양상을 보이는 개인이라도 최고 점수만 같으면 동일한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제한점이 지적된다(이수란, 이동귀, 2007).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후 애착 유형의 사회불안에 대한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은 (2004). 성인 애착유형과 요인에 따른 성격 특성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53-69.
- 김향숙 (2000). 사회공포증 하위 유형의 기억 편향.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 노경란, 방희정, 조혜자 (2007). 성인애착과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471-490.
- 박은경 (1993). 애착유형이 자존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유형과 자기 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이수란, 이동귀 (2007). 잠재 군집 분석을 이용한 애착 유형 분류.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98-299.
- 임지은 (2003).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대인 불안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7). 성인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23-138.
- 전병제 (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조용래, 원호택 (1997). 사회불안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과 타당도에 관한 연구. *심리학의 연구 문제*, 4, 397-434.
-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65-178.
- Ainsworth, M., Blehar, M.,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nold, M. (2001). *The decision to work with the older adult: Attachment, death anxiety and attitudes toward old people*. Unpublished doctor's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 Bar-Haim Y., Dan O., Eshel Y., Sagi-Schwartz A. (2007). Predicting children's anxiety from early attachment relationship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 1061-1068.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1991). *Attachment style prototype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 A test of a four 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eidel, D., Turner, S., Stanley, M., & Dancu, C. (1989).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concurrent and external validity. *Behavior Therapy*, 20, 417-427.
- Bekker, M. H. J. (1996). Agoraphobia and gender: A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6,

- 129-146.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erman, W. H. & Sperling, M. B. (1994).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 (pp.3-28). NY: Guilford Press.
- Blascovich, J., & Tomaka, J. (1991). Measures of self-esteem. In J.P. Robbinson, P.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ume 1*.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ouvard, M., Guerin, J., Rion, A. C., Bouchard, C., Ducotter, E., Sechaud, M., Mollard, E., Grillet, P., & Cottraux, J. (1999). Psychometric study of the social self-esteem inventory of Lawson et al. (1979).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49, 165-172.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Press.
- Brennan P. R.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4), 451-466.
- Brennan, K. A., & Shaver, P. R. (1995). Dimensions of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romantic relationship function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267-283.
- Brennan, K. A., Shaver, P.R., & Tobey, A. E.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3-35.
- Bretherton, I. (1987). New perspectives on attachment relations: Security,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In J.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1061-1100), New York: Wiley.
- Brisch, K. H. (2003). *애착장애의 치료-이론에서 실제까지 [Bindungsstörungen von der Bindungstheorie zur Therapie]*. (장희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1999에 출판)
- Brunch, M. A., Cheek, J. M. (1995). Developmental fact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t shyness. In R. G. Hembu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163-182). New York: Guilford Press.
- Cassidy, J., & Berlin, L. J. (1994). The insecure/ambivalent pattern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Child Development*, 65, 971-991.
- Castle, D. J., Deale, A., & Marks, I. M. (1995). Gender differences in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29, 114-117.
- Cheek, J. M., & Stahl, S. S. (1986). Shyness and verbal creativ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0, 154-171.

- Personality*, 20, 51-61.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avidson, J. R. T., Hughes, D. C., George, L. K., & Blazer, D. G. (1994). The boundary of social phobia: Exploring the threshol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975-983.
- Dickstein, L. J. (2000). Gender differences in mood and anxiety disorders: From bench to bedside: American Psychiatric Press Review of Psychiat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 1186-1187.
- Edelmann, R. J. (1985). Dealing with embarrassing events: Socially anxious and non-socially anxious groups compared.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281-188.
- Eng, W., Heimberg, R. G., Hart, T. (2001). Attachment in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The relationship among adult attachment styles,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Emotion*, 1(4), 365-380.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eeney, J. A., Noller P.,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s* (pp.128-154). NY: The Guilford Press.
- Ferda I., Gamze A., Rohan D., & Nesim K. (2004). Social phobia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its relation self-esteem and body image. *Canadian Journal Psychiatry*, 49, 630-634.
- Fredrikson, M., Annas, P., Fischer, H., & Wik, G. (1996). Gender and age differences in the prevalence of specific fears and phobia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3-39.
- Ginsburg, G. S., La-Greca, A. M., & Silverman, W. K. (1998). Social anxiety in children with anxiety disorders: relation with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75-185.
- Griffin, D., & Bartholomew, K. (1994). Models of the Self and Other: Fundamental Dimens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430-445.
- Harrison-Greer, L. L. (1991). *Styles of attachment in marit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rk University, North York, Ontario, Canada.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ersonality*, 52(3), 511-524.
- Hazan, C. & Shaver, P. (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Heimberg R. G., Horner J. K., Juster H. R., Safren S. A., Brown E. J., Schnier F. R., Liebowitz M. R. (1999)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Psychol Med* 29(1), 99 - 212.
- Hewitt, P. L., & Norton, G. N. (1993). The Beck Anxiety Inventory: A psychometric analysis. *Psychological Assessment*, 5, 408-412.

- Kessler, R. C., McGonagle, K. A., Zhao, S., Nelson, C. B., Hughes, M., Eshleman, S., Wittchen, H. U., & Kendler, K. S. (1994). Lifetime and 12-month prevalence of DSM-III-R psychiatric disorder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1, 8-19.
- Kessler, R. C., Stein, M. B., & Berglund, P. (1998). Social phobia subtype in the National Colorability Surve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5, 613-619.
- Kobak, R. (1994). Adult attachment: A personality or relationship construct? *Psychological Inquiry*, 5, 42-44.
- Kobak, R. R.,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covski, N. L., & Endler, N. S. (2000). Social anxiety, self-regulation,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4, 347-358.
- Leary, M. R. (2001a). The self we know and the self we show: Self-esteem, self presentation, and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G. J. O. Fletcher and M. S. Clark (Eds.), *The Blackwell handbook in social psychology: Interpersonal processes* (pp.457-477). Oxford, England: Blackwell.
- Leary, M. R. (2001b). Social anxiety as an early writing system: A refinement and extension of the self-presentational theory. In S. G. Hofmann & P. M. DiBartolo (Eds.), *From social anxiety to social phobia: Multiple perspectives* (pp.1-7).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Leary, M. R., Kowalski, R. M. (1995a). *Social anxiety*, New York: Guilford.
- Leary, M. R., Kowalsky, R. M. (1995b). The self-presentation model of social phobia. In R.G. Heimber,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Lewis, M. (1994). Does attachment imply a relationship or multipl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47-51
- Lopez, F. G., & Gormel, B. (2002). Stability and changes in adult attachment styles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 to self-confidence , coping, and distress pattern. *Journal of Counseling*, 47(3), 283-300.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 of social phobia and scrutiny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6, 455-470.
- Mich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 - 1106.
- Misra, R., McKean, M. (2000). College Students' Academic Stress and its Relation to Their Anxiety, Time Management, and Leisure

- Satisfaction. *American Journal of Health Studies*, 16, 41.
- Muris, P., Mayer, B., Meesters, C. (2000). Self-reported attachment style,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8(2), 157-162.
- Park, L. E., Crockett, J., & Mickelson, K. D. (2004). Attachment styles and contingencies of self-worth.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0), 1243-1254.
- Paul, G. L. (1966). *Insight versu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rrine, R. M. (1999). Stress and college persistence as a function of attachment style. *Journal of the First-year experience & Students in Transition*, 11(1), 25-38.
- Perugi, G., Nassini, S., Maremmani, I., Madaro, D., Toni, C., Simonini, E., & Akiskal, H. S. (2001). Putative clinical subtypes of social phobia: a factor-analytical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4, 280-188.
- Pietromonaco, P. R., & Carnelley, K. B. (1994). Gender and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Consequences for perception of self and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1, 3-26
- Pilkonis, D. A., Feldman, M., Himmelhoch, J., & Cornes, C. (1980). Social anxiety and psychiatric diagnosis.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8, 13-18.
- Pyszczynski, T., Greenberg, J., Solomon, S., Arndt, J., & Schimel, J. (2004). Why do people need self-estee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neier, F. R., Heckelman, L. R., Garfinkel, R., & Campeas, R. (1994). Functional impairment in social phobia.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5, 322-331.
- Schneier, F. R., Jonson, J., Hornig, C. D., Liebowitz, M. R., & Weissman, M. M. (1992). Social phobia: Comorbidity and morbidity in epidemiological samp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9, 282-288.
- Shepherd, R. M. (2006). Volitional Strategies and Social Anxiety among College Students. *College Quarterly*, 9(4).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71-980.
- Simpson, J. A., Ickes, W., & Grich, J. (1999). When accuracy hurts: Reactions to anxious-ambivalent dating partners to a relationship-threatening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754-769.
- Sroufe, L. A. (1996). *Emotion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ein, M. B., Torgrud, L. J., Walker, J. R. (2000) Social phobia symptoms, subtypes, and severity: Findings from a community surve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7, 1046- 1052.
- Strahan, E. Y. (200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social skills on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347-366.

- Turk, C. L. & Heimberg, R. G. (1998). An Investig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Phobia.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3), 209-223.
- Turner, S. M., Beidel, D. C., & Townsley, R. M. (1992). Social phobia: A comparison of specific and generalized subtypes and 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326-331.
- Vertue, F. M. (2003). From adaptive Emotion to dysfunction: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social anxiety disord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7, 170-191.
- Wittchen, H. U., Stein, M. B., & Kessler, R. 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ology Medicine*, 29, 309-323.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2).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rev10*.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Zhang, F., Labouvie-vief, G. (2004). Stability and fluctuation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a 6-year period.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6(4), 419-437.

1차원고접수 : 2008. 4. 10.

수정원고접수 : 2008. 6. 10.

최종게재결정 : 2008. 6. 17.

Adult Attachment and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nxiety

Hae-Lin Shin

Ki-Hak Lee

Yonsei University

College students are exposed to a broad array of social interaction and social performance. During college years, socially anxious students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while transiting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Fueled by the importance of social anxiety level in adulthood adjustment, the present study explored attachment style and gender differences in a sample of college students with an emphasis on the perceived level of social anxie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ceived levels of social anxieties(social interactive anxiety, social phobia, presentation anxiety) according to differential adult attachment style. Post hoc analyses showed that (1) secure students were less anxious than dismissing, preoccupied, and fearful students in social interaction and that (2) secure students reported lower levels of anxiety than preoccupied and fearful students on social phobia, and presentation anxiety. Interestingly,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only in presentation anxiety in that fe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levels of presentation anxiety compared to male students. Adult attachment style and gender did not interact in all of three social anxieties. The current findings suggest that in exploring social anxiety, individual differences such as adult attachment style and gender should be fully considered.

Key words : Adult Attachment Style, Social Interactive Anxiety, Social Phobia, Presentation Anxiety, Gender Difference